

전일빌딩245 ‘시민 복합문화공간’ 자리매김

시민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 22개 운영...4만8천명 참여 버스킹 챌린지·주동아리 등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 인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전일빌딩245'가 매주 토요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민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 4만8천여명이 다닌다는 등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2일 "5월 18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전시, 융복합 공연, 초대전, 버스

킹, 투어, 공예 체험, 플리마켓, 인문학 토크 등으로 구성된 '전일빌딩245 시민 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에 약 4만8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일빌딩의 새로운 미래를 의미하는 '타임리스 245'를 주제로 마련된 올해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

도록 기획돼 22개 프로그램을 총 346차례 운영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이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버스킹 챌린지'는 관객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민버스로 직접 무대에 서서 끼를 뽐내고 초청버스와 소통하는 무대로 재워졌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주동아리', 자신을 브랜드해 스스로 강연자가 돼보는 '시민참여 오픈마이

크', 수강생들이 직접 PD 역할을 맡아 영상을 만들어 상영회를 개최한 'K콘텐츠 프로듀서 양성 과정' 등은 많은 인기를 끌었다.

11월 16일 열린 '스토리가오제 : 노래는 사연을 싣고'는 총 100명이 참가해 결선 무대에서 20대의 예선 경쟁률을 뚫고 진출한 8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끼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노래에 담긴 각자의 사연을 관객과 나누고 소통하며 호평받았다.

'스텝투어'는 '방탈출 게임'을 동기

(모티브) 삼아 전일빌딩245 건물 내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으로 전일빌딩245가 광주 대표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는 계기가 됐다. 총 18차례 진행된 '스텝투어'에는 980명의 시민이 참여해 전일빌딩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작가와 소통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인문여행 북새통'에 참여한 시민은 "오즘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인문학이 주목받고 있는 데 아이와 함께 박준·임흥택 두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어 풍성한 시간이었다"며 "체험 뿐만 아니라, 강연 등 시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정아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전일빌딩245 시민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전일빌딩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젊은 세대의 방문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만큼 이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내년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이웃 사랑으로 버무리요” 김장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빛고를 시렁나눔 김장대전’이 2일 오후 광주남구 임암동 김치타운에서 열려 참가를 신청한 시민들이 배추를 버무리고 있다. /김예리기자

광주시 “내년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하세요”

13일까지 공익활동·역량활용 등 3만6천348명 모집

광주시는 2일 “노인 공익활동 사업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2025년 노인일자리아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 노인일자리아사업에 1천500여명의 예산을 투입, 3만6천3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9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인원은 사업 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 공익활동 사업 2만6천502

명 ▲보육시설 보조 등 노인 역량 활용 사업 5천923명 ▲매장 운영 등 공동체사업단 2천754명 ▲민간업체 취업 지원 (취업 알선형) 사업 1천109명이다.

모집 대상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이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고 취업 지원(취업 알선형)은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 어르신이다.

희망자는 2일부터 1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

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노인일자리아(www.seniorro.or.kr), 북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 29만원을 지급받으며,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월 60시간 근무시간에 76만1천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변은진기자

장성군, 전남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최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 등 호평...고흥군·강진군 우수상

장성군이 귀농어귀촌 신규 유입을 위한 '2024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종합평가는 목포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귀농어귀촌인 유치 실적, 지역민과의 융화사업 추진 등 귀농어귀촌 신규 유입을 위한 정책 성과가 우수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친 시·군을 발굴,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최우수상 장성군을 비롯해 우수상에 고흥군·강진군, 장려상에 해남군·영암군·무안군을 선정했다.

평가는 시·군별 귀농어귀촌인 유입 실적, 도비 지원 사업 참여도, 귀농어귀촌 정책 프로그램 운영과 유튜브·박람회 참가 등 홍보 활동,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및 농림축산식품부 동량플랫폼인 '그린데로' 누리집 정보 제공 실적 등을 심사했다.

평가 결과, 장성군은 도에서 지원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전입률,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사업,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과 농업 창업·주택 구입 지원 융자사업 등의 사업 참여도와 추진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성군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귀

농인 장성호 수변길 마켓 운영 지원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학교 운영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 눈높이에 맞는 상담과 영농 교육을 하는 등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인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9월 전남도 공모 2024년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사업(총사업비 50억원)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적극적인 귀농귀촌 인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명진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우수 시책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해 도시민 유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산림연구원,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전시

전남도산림연구원은 2일 “산림비즈니스센터 1층에서 오는 5일까지 '전남 지역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세밀화는 식물의 미세한 구조를 비롯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꽃이나 줄기, 열매의 묘사까지도 가능하다. 석영표본이나 사진과는 다르게 손으로 직접 그린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이번 세밀화 전시는 전남도산림연구원이 지난달 준공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2003년부터 제작·소장한 세밀화 중 전남지역에서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과 난대수종 위주로 선별한 것이다. 조도만두나무, 금세우난초, 끈

끈이귀개, 완도호랑가시나무 등 총 25점을 선보인다.

전남지역에는 완도호랑가시나무, 도해비비추 등 특산식물 50종, 왕자귀나무, 끈끈이귀개 등 희귀식물 10종, 조도만두나무, 흑산도비비추 등 희귀특산식물 20종 등 총 201종의 희귀특산식물이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조도만두나무, 완도호랑가시나무, 흑산도비비추, 홍도서덜취 등 4종은 전남지역에서만 자란다.

오득실 원장은 “세밀화 전시를 통해 전남 산림자원 보전과 이용, 다양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스마트 혁신성장 거점사업과 연계해 경쟁력있는 산림 바이오산업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시, 기상관측표준화 평가 '우수'

광주시가 기상청 주관 '제1회 기상관측표준화' 전국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상관측표준화는 기상청과 지자체 간 공동 활용 중인 기상관측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상관측시설 유지, 품질 관리 현황을 종합 진단·평가하는 제도다. 그동안 광주시는 기상관측 현장 설비를 수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기상관측 데이터 품질 관리에 힘을 쏟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강수량계 설치 및 강우 관측시스템을 운영, 기상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표준화된 강수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변은진기자

전액 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입학상담
☎ 062) 448-1188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미디어컨텐츠	 소프트웨어 & 빅데이터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포토샵, 일러스트를 활용한 이미지 편집, 제작교육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코딩) 빅데이터 분석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전향방법 : 입학선발평가 실시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 채용 사업주 지원 : 신규고용장려금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장애인 1명당 월 35만원 ~ 9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